

(서울 당서초등학교 2학년 1반 윤태인)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봄이 온 게 맞나요? 바람이

제목 : 가족나들이 (허브농원) 생생

이른 아침부터 바빴다. 왜냐하면 할매, 할아버지,
가족과 함께 팜카밀레 허브농원을 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반겨
준 것은 날아갈 듯한 바람이었다.

제일 먼저 내 눈에 띄는 것은 여러가지 색깔의
튤립이었다. 라벤더와 카모마일 꽃도 있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여러가지 꽃들이 길가에 있었다.
좀더 내려가니 꽃사슴, 산양, 카리스마 있는
당나귀도 있었다. 아! 누군가 모종을 다 뜯어먹고
있었다. 다른 아닌 산양이었다.

할아버지는 자기 집에 있는 모종을 뜯어먹는
거라며 관리인만 부르라고 했다. 무로 올라가니
일곱 난쟁이 의자도 있었다. 상점에 가니 허브,
여러가지 꽃냄새가 풍겼다. 우리 가족은 머리에
자스민, 라벤더 에센스도 발라보고 바디로션도
발라보았다. 자스민 향기가 달콤해서 자스민
바디로션을 샀다.

꽃도 보고 향기도 맡고 맛있는 것도 먹으니까
눈도 즐겁고 코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다.

오랜만에 나가서 좋았지만 차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많이 놀지 못해 아쉬웠다.